

전남

해남군 고구마 특구 지정 '본격 시동'

해남군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일 군청 상층실에서 열린 해남 고구마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의회보고 등을 거쳐 연내에 지식경제부에 재역특화 발전특구지정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고구마 재배비중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지만 세계화·산업화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웰빙에 따른 고구마 수요증가, 2·3차 융복합 산업화로 고소득 창출, 체험 관광 형태의 관광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 등 필요성에 따라 특구

세계화·산업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필요

생산·가공·유통 연결... 고부가가치 창출

지정 추진에 나섰다.

해남지역 고구마 재배면적은 지난 2001년 564ha에서 2008년 1천867ha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 배면적의 11%, 전남의 54%를 차지 한 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을 맡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중부처는 "해남군이 지난 1999년부터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과 2007년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고구마 특구 지정으로 고구마의 향토 자원화, 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고구마 관광 및 마케팅 분야 등으로 특화시켜 1, 2, 3차 산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도 고구마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단위 중앙부처의 군특구사업과 기업사업 투입 등이 원활해져 지역특화산업 기반 구축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참여

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확산능력을 비롯해 4개소의 고구마 전문유통센터가 가동되는 등 생산과 가공, 유통이 폭넓게 발달해 특구로 지정되면 전국적인 브랜드 지명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식 해남군수는 "특구 지정은 해남이 전국을 대표하는 고구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토자원인 고구마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국비사업 유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 장도목교 '뷰티풀'

신지대교·완도타워 등 3곳 '국제공공디자인대상' 수상

완도 신지대교(사진 하)와 장도목교(사진 상), 완도타워 등 공공시설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재)한국공공디자인 지역지원재단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3개 중앙부처와 국회안전디자인포럼 등 19개 기관·단체가 후원하는 '2009 국제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완도군에서 유모한 신지대교(야간경관 시설물)와 완도타워(랜드마크), 장도목교(토목 구조물) 등 3개의 공공시설 디자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완도군은 공공공간, 생활환경시설물, 토목구조물,



공공건축물, 랜드마크, 야간경관조명시설물 등 총 13개의 응모부문 중 3개곳을 출품했다.

'국제 공공디자인대상'은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가 공공디자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시합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편 상식은 2010년 1월 20일 국회에서 열리며 상을 수상하는 자치단체는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PDA (public Design Award)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완도=정문조기자 ejchung@



배추 수확은 하지만...

3일 김장철을 앞두고 밭도 없이 펼쳐진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한 배추밭에서 농민들의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농민들은 식당 등에서 김치소비가 크게 늘고 직황호주로 배추가격이 폭락하며 수확의 기쁨대신 한숨소리만 높아가고 있다.

<해남군 제공>

여수 굴 양식 2000년 이후 최대 풍작 바다내음 입안가득 '굴' 많이 드세요

여수지역 굴 양식이 2000년 이후 최대 풍작이 예상된다.

3일 전남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 (소장 임영호)에 따르면 최근 가막만 및 여서, 돌산도 동쪽 해역 일대의 굴 양식장 예상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풍작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수해역에서 생산되는 양식 굴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수확하는데 가막만과 돌산도 동쪽 해역 일대 925ha의 어장에서 평균 3만여이 생산돼 200억원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효과 양식 품목이다.

그러나 올해는 어할 결과 낮은 폐사율과 높은 비만도를 보이는 등 어

황이 좋아 생산량이 2만여이 많은 5만여이 300억원대에 예상된다.

이같은 대풍작 전망은 지난 6월 굴 양식 시설 이후 여름 장마기간 많은 비로 먹이 생물이 풍부하고 섭씨 25도 미만의 적정 수온대가 최근까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생육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여수수산기술사업소 측은 "모처럼 찾아온 풍작인 만큼 풍량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유의하면서 수확을 채취, 체취시기 분산 등의 방법으로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목포해경, 낚시꾼 대상 호각 달아주기

"위험에 처했을때 호루룩~ 부세요"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낚시꾼 해상주락 등 인명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구조가 가능하도록 낚시꾼을 대상으로 호각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출항시 낚시꾼들의 가슴에 호각을 달아주며 위험에 처했을 때 호각을 불어 구조 요청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알리며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소득수준의 향상,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바다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쉬워짐에 따라 수

상대적 스포츠 활동 시기도 어느 계절에 한정되지 않고 사계절 쉽게 즐길 수 있는 국민적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해양레저활동은 해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치하면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 급변하는 해상 기상으로 인해 낚시꾼의 안전사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호각 소리로 사고자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 구조함으로 낚시꾼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해남군 직원 우수 군정 아이디어 5건 채택

해남군이 올해 직원을 대상으로 군정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모두 439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5건이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는 등 군정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3일 군에 따르면 군정 제안 가운데 화원면에 있는 '목포구 등대 활용 관광 자원화'와 천년고찰 대흥사에 '숨 쉬는 길' 조성, '해남군 문화교 건립', '공공시설물 디자인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목포구 등대 앞바다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일몰 등 자연 풍광을 보며 쉬 수 있는 펜션단지를 조성해 보자는 등대 활용 관광자원화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선정된 우수 제안을 해당 부서로 넘겨 세부 계획을 수립,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여수시 전국서 두번째 '여성친화도시' 선언

여수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를 선언한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양성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약속하기 위해 오는 5일 여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여성부가 해당 지자체의 앞으로 정책 방향 등을 심사해 지정하는 것으로 전북 익산시가 전국 1호로 지정됐고 여수시는 2호다.

협약식은 환풍기 여성부 차관과 오현실 여수시장의 협약서 교환, 여성친화도시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희망근로자의 꿈·정성이 수생식물공원으로

진도대교 인근... 관광객 발길 이어져

진도군에 희망 근로자의 꿈과 정성이 가득 담긴 수생식물공원(사진)이 문을 열었다.

3일 진도군 군내면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 근로자 25명이 참여해 방치된 야산과 휴경밭을 활용, 1만5천㎡ 규모의 '향아리 수생식물공원'을 최근 조성했다.

진도군의 관문인 진도대교 인근에 위치한 향아리 수생식물공원에는 인공 연못과 연꽃 등 수생식물을 비롯해 향아리 인돌상과 폐목재를 활용한 이색 조형물과 통나무 다리, 냉동식물 터널 등 휴게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희망 근로자들이 두 달 동안 직접 제작한 높이



13m크기의 대형 바지개는 국내 최대 규모로 방문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야생화를 보며 걷는 자연친화적인 산책로가 조성돼 관광객과 주민은 물론 자연 체험을 하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election results, including candidates, votes, and percentages. Includes a header for '공인중개사: 강영희' and 'K (주)국민법률경매'.